

축사

21세기의 문화시대에 걸 맞는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과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단법인 예술로 여는 복된 세상 해피월드’의 이사장 초격스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불교는 부처님오신날, 출가재일, 성도재일, 열반재일 4대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중 부처님오신날을 가장 큰 명절로 지내고 있습니다만, 불교의 교리와 역사적 의미를 본다면 성도재일 역시 부처님오신날 못지않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고, 싯다르타 태자의 깨달음이 곧 불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공연은 단순 기념음악회의 의미를 뛰어 넘어 불교의 교리와 역사, 그리고 성도절의 의미를 확인하고 재정립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바른 이해와 실천의 중요함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가르침을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래로 만들어 발표하는 이와 같은 행사는 그 원력과 공덕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뜻 깊은 자리가 지난해 이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해피월드의 발전과 함께 성공적인 공연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년 1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